

계 두(鷄痘)

원 송 대

〈경북 축산 영업부〉

피부에 사마귀모양의 두창과 목과 기관(습관)에 결절 또는 디프테리성 병변이 생기는 발진성 전염병이다.

예방관리

계두백신 혹은 구두백신을 사용해서 접종을 적기에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계두백신은 스틱방법(Stick method)으로 실시하고 구두백신은 브러쉬방법(Brush method)으로 접종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계두백신을 사용하고 있다.

계두백신(fowl pox Vaccine)

이 백신은 면역의 효력은 크나 병원성이 강해서 콕시듐병, C.R.D. 코라이자 등에 가볍게 감염된 닭에 접종하면 발병하는 수가 많고 산란계에 접종하면 산란이 멀어지고 알이 작아진다.

일회접종으로 일생면역이 되는 것이 장점이다.

구두백신(Pigeon Pox Vaccine)

콕시듐병과 C.R.D.가 만연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권장할 약이나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고 있다.

구두백신은 계두백신에 비해 면역 효력이 짧아서(3~4개월 면역) 반복 접종 해야하는 것이 단점이다.

병원성이 약해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드물다.

즉 산란계에 접종해도 산란에 영향이 없고 콕시듐병과 C.R.D등에 감염된 닭에 접종해도 부작용은 거의 없다.

접종시 주의

○접종에 적합한 시기는 부화후 8~10주가 좋다.

○1개월 이내의 닭에 계두 백신의 효력은 거의 없다.

○접종은 건강한 계군에 실시해야 한다.

○접종후 7일후에 발두 검사를 하고 발두 되지 않은 닭은 재접종을 한다.

○예방접종시 접종약을 계사내에 흘리지 말것

○접종부위, 접종약의 보관 및 사용법을 제약회사의 지시 사항대로 잘 준수 할 것.

계두의 임상학적 분류

(1) 계두형

벼슬, 육수, 주둥이 및 눈주변에 사마귀 모양의 발두가 생긴다.

눈까풀(안검)이 붓고 눈까풀속에 견락성 물질이 들어 있다.

(2) 계디프테리형

인후두, 기관의 회백색의 결절 혹은 디프테리성 위막이 생긴다.

이로 인해서 호흡곤란을 일으켜 질식해 죽는다.

(3) 피부형

간혹 닭등에 두드러기처럼 작은 발두가 생기는 수가 있다.

역학(疫學)

계두는 상피침화성 바이러스인 계두바이러스에 의해 생긴다. 발생계절은 봄부터 가을까지 발생하나 한번 발생된 계사에서는 겨울철에도 발생하는 수가 있다.

전염방법은 주로 모기에 의한 감염이나 창상 감염도 된다.

또한 계두바이러스의 단독 발생되는 수가 많으나 호흡기 질환(C.R.D 혹은 코라이자)과 함께 발병하여 폐사가 5~10% 되고 산란이 10%정도 하강하는 수가 있다.

치료

효과 있는 원인 치료는 없고 다만 대증요법이 있을 뿐이다.

계디프테리형은 목에 있는 결절을 펌셋트로 빼어내고 옥도정기를 빌라준다.

계두형의 경우는 항생제 연고를 자주발라 주면 떡지가 빨리 멀어진다.

다른 질환의 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3~5일간 음수투여 함이 좋다. □□

(사)

(진)

(해)

(설)